

나누기와 버리기

이정훈*

핵심교양과목의 글쓰기 T.A.로 활동한 경험을 쓰면서 제목을 ‘나누기와 버리기’라고 한 것은 학생들과 함께 한 시간이 글쓰기의 문제점을 공유하고 이를 근간으로 필자 역시 오래된 글쓰기의 잘못된 잔유물을 털어 낸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함께 한 학생들 역시 그 과정이 나누기와 버리기의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본다.

전방에서 근무하는 병사가 손전등에 의지하여 취침시간에 그리운 이에게 몰래 쓴 편지도 글이요, 칼럼니스트가 신문에 기고하기 위해 쓴 글도 글이다. 그러나 이 두 글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차이를 갖는다. 이러한 차이는 글의 목적, 즉 ‘이 글을 왜 쓰는가’의 차이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한다. 핵심교양 과목을 수강하는 학생들 중에는 제출해야 하는 자신의 글에 대해 마치 라디오 프로그램에 사연이 채택되기를 바라는 의도에서 엽서를 예쁘게 장식하는 것처럼, 다양한 색을 사용하고 글자모양을 현란하게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경우도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병사의 편지가 아름답게 꾸며져서 감동을 주는 것이 아니듯이 학문적 글쓰기에서 이러한 요소는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수업에서 나타난 다른 문제점들은 앞으로 상세히 언급하겠지만, 필자는 우선 전술한 학문적 글쓰기의 목적을 학생들과 함께 인식하는 것을 기초로 T.A.의 역할을 시작하였다. 글쓰기의 전문가가 아닌 필자로서는 이처럼 다양한 양상의 학생들의 글에 대한 상담과 코멘트가 다소 부담이 되었지만 앞으로 많은 글을 써야 하는 입장에서 스스로 글쓰기를 배운다는 마음가짐으로 학생들을 만나고 그들의 글을 읽었다.

학생들은 예상보다 빨리 적응하고 자신의 글을 변화시켰다. 필자가 참여한 핵심교양과목 <현대사회와 법>은 인터넷상에 수업 홈페이지를 만들어 학생들의 글과 함께 그 글에 대한 코멘트를 게시하였다. 이를 통해서 자신의 글과 다른 이의 글이 갖는 문제점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또 아직 글을 쓰지 않은 학생들까지도 간접적으로 상담을 받는 효과가 나타났고, 실제로 학생들은 그를 자신의 글에 반영하였다. 온라인상의 공유는 시간적 제한과 물리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되었다. 물론 제출한 글에도 코멘트를 하면서 필요한 경우 상담 제안 메모를 남겨두었는데, 1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연락을 해주어 차담을 나누며 글쓰기에 대해 논의할 수 있었다. 다음은 필자가 핵심교양교과목 T.A.를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의 글에서 발견한 문제점들이다.

① 군대식 보고서나 참고서 핵심 정리식 글쓰기

학생들의 글 중에서 많이 발견된 문제점 중의 하나가 군에서 작성하는 보고서 양식을 그대로 사용한다는 점이었다. 핵심적인 보고 내용을 최대한 간결하게 잘 보이도록 ●, ◇와 같은 문자표를 사용하여 정리하는 형식인데, 이러한 형식으로 글쓰기를 하게 된 원인까지 정확히 파악할 수 없었으나, 학생들은 이 형식이 이상적인 리포트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군에서 사용하는 이 보고서 형식은 보고의 효율성을 높인 것으로 학문적 글쓰기의 형식으로는 적

* 서울대학교 법학부 박사과정, 2003년 2학기 <현대사회와 법> 글쓰기 T.A.

합하지 않다.

또한 학생들이 입시 참고서나 고시용 참고서에 나오는 요약정리와 같은 형식으로 글을 쓰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흔히 접하는 형식에 익숙해진 결과라고 생각한다. 법대 학생들의 경우는 주어진 과제와 관련된 판례를 찾아 이를 평석하는 형식을 취하기도 하였는데, 대학 진학 후 읽은 판례평석이 학문적 글쓰기의 전형이라고 오해한 것 같았다. 즉 그들은 글쓰기를 학문적 논증의 과정으로 보기보다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자료를 보기 좋게 정리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필자는 학생들의 이러한 인식을 바꾸는 데 주력하였다.

②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구별하지 않는 글쓰기

학생들은 타인의 글을 인용한 경우에, 이를 밝히는 형식을 취하지 않고 글을 쓰는 습관에 익숙해 있었다. 자신의 생각과 타인의 생각을 구분하는 경계에 대한 인식이 모호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도표나 통계를 인용하면서도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자신의 주장을 논증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동지(同志)를 밝힌 이의 글, 즉 선행연구가 이미 자신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취지에서 논증한 것을 인용하면서 주장의 설득력을 배가시키고 논증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계 등을 인용하는 것에 대해 설명해 주고, 타인의 생각을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문제점을 환기시키는 데 주력하였다.

③ 인쇄 자료에 대한 맹신

학생들은 고교 과정까지 교과서에 실린 내용을 마치 종교경전처럼 신뢰하는 데 익숙해 있어서인지, 인쇄된 자료에 제시된 내용을 맹신하는 경향을 보였다. 단행본에 제시된 내용도 여러 주장 중의 하나라는 인식보다는 그 자체를 진리라고 생각하고 다른 학생의 주장을 논박하면서 “책에 나온다”라며 일갈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고교 시절의 편견을 바로잡는 과정도 T.A.의 역할 중 중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한다.

④ 적절성이 없는 인용과 수업의 목적에서 벗어난 글쓰기

법대의 핵심교양과목을 수강한 법대학생들 중에는 특히 고학년의 경우, 자신의 전문지식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인용의 개연성이 떨어지는 자료를 열거하거나, 수업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자료들을 근거로 글을 쓰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법대 학생 외에도 맥락상 불필요한 인용이 자주 등장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 역시 과시용 글쓰기의 형태였다.

⑤ 형식을 갖추지 못한 글쓰기

목차를 구성하지 않고 글을 쓴 경우 논리적 일관성을 상실하거나 글의 주된 맥락과 다른 주장을 갑자기 제시하는 문제가 있었다. 목차구성을 하지 않고 글을 쓰다 보니 논리전개와 논증 과정에서 길을 잃게 되는 것이었다. 글을 쓰는 까닭을 서론에서 명확히 하는 것 역시 글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글쓰기의 중요한 부분이며 효과적 논증을 위한 필요조건임을 설명하였다.

위에서 밝힌 글쓰기의 문제점들을 학생들이 인식하고 고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학생들은 능동적으로 자신의 글을 수정하고 필자가 코멘트 한 내용을 반영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코멘트 하는 과정은 필자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내 자신의 잘못된 글쓰기 습관을 반성하고 고치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도 조를 편성하여 조별과제를 부과했던 수업 방식이 학생들의 적극성을 유발시키는데 효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즉 학생들은 공동 과제를 제출하기 위해 글쓰기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글쓰기에 대한 열띤 토론을 했던 것으로 생각한다. 공동 과제의 준비과정은 곧바로 개별 과제에 반영되었고, 동시에 완성도 높은 글이 나오게 된 배경이 되었다. 완성도 높은 학생들의 글을 읽게 되었을 때 T.A.로서 많은 보람을 느꼈다.

또한 담당교수인 정공식(서울대 법학부) 교수님께서 수업 중에 필자에게 T.A.의 존재와 역할을 학생들에게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 활동에 혼선을 막을 수 있었고, 간간이 글쓰기에 있어 유의할 사항을 전달할 기회를 주신 것도 활동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

T.A.가 효과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강인원이 필수적이겠지만 이러한 제약과 한계를 부분적으로나마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온라인상의 교류와 조별 상담이라고 생각한다. 학생들과의 교류는 서로에게 신뢰감과 친밀감을 주었고, 강의에 대한 흥미도 높일 수 있게 해주었다.

끝으로 T.A.의 활동에 많은 배려와 격려를 해주신 정공식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부족한 T.A.와 한 학기를 함께 한 <현대사회와 법>을 수강하신 학생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